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신성종 편집인:우기전 편집국장:조선근

❁1994년 성탄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지난 23일(금), 연합찬양대의 '메시아' 연주
오늘 주일 각 부 예배는 성탄절 축하예배로
교회학교도 각 부에서 자체적으로 축하행사



▲ 성탄절을 맞아 각부에서는 축하행사를 가졌다. 유치원의 성탄축하행사 모습.

1995년도
선교기도위원 모집

본 교회의 해외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할 1995년 선교기도위원을 아래와 같이 각 선교권별로 모집합니다. 기도야말로 최대의 선교동력임을 믿으면서 많은 성도들의 적극 호응을 바랍니다.

· 자격 : 충현교회 세례교인
· 참여방법 : 선교위원회로 직접 찾아 오시거나, 엽서나 편지로 기재사항 (교적번호, 교구와 구역명, 교회 직분, 주소와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이름, 관심있는 선교권)을 적어 아래로 우송하시거나 팩스로 송신도 가능.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선교위원회
전 화 : 552-8200(교 356-358)
팩 스 : 556-9788

· 선교권 분류 : 남아시아권, 북아
시아권, 미주권, 유럽권, 아프리카권, 북
한권(6권중 택일)

고 이학주 권사 소천
22일(목), 교회뜰에서 당회장(葬)

우리 교회 설립 18인 중에 한 분인 이학주 권사가 지난 12월 20일 오전 3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22일(목) 오전 10시 교회뜰에서 당회장(葬)을 치루었다.

고 이학주 권사는 평북 출신으로 1951년 월남, 그 후 6.25동란 후 부산으로 피난가면서 김창인 목사(당시 전도사)가 시무하던 동일교회에 다녔고 환도하여 충현교회 모체인 동일교회를 김창인 목사님과 창립 및 건축에 참여하였다.

고 이학주 권사는 1966년에 권사로 취임후 시무권사로, 명예권사로 교회에 충성 봉사하여 왔는데 인제나 변함없이 서 있는 큰 나무 그늘이 되어 충현 40년사의 산증인이며 기도의 어머니의 생을 사셨다. 더욱이 노년에는 개척교회를 설립하고 돕는데 평생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삶을 다하신 믿음의 선진으로서의 복되고 귀한 삶을 통해 신앙의 본을 보여 주셨다.

1994년도 성탄절을 맞는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에서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은 이제 온 인류가 지키는 명절이 되었다. 그러나 성탄절은 갈수록 상업화되어 가고 향락화되어 가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성탄절을 맞으며 믿는 우리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경건하고 참된 기쁨과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평화와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될 것이다. 교회에서는 지난 23일(금), 연합찬양대의 '메시아'를 연주하며 주님의 탄생을 축하했다. 많은 교우들이 온 가족과 함께 참여하여 성탄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며 감사와 기쁨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각 교회학교에서 자체의 성탄절 축하 프로그램으로 성탄의 의미를 살리며 그리스도가 이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늘 각 부 예배를 성탄축하예배로 드리며 성탄에 관한 설교와(I, II, III부 신성종 목사, 눅 2:8-14, '첫번째 맞는 성탄절', IV부 김창인 목사, '마 2:1-12, 메시아 앞에서') 성탄감사헌금을 하게 된다. 또한 저녁찬양예배에는 연합찬양대의 '메시아' 찬양이 있다.

12월26일(월)~29일(목)
충현기도원에서 부흥회

충현기도원에서는 한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으며 자신을 돌아보고 새해를 설계하는 마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부흥회를 열기로 했다.

오는 12월 26일(월)부터 29일(목)까지 당회장 신성종 목사와 충현기도원 지도 김용기 목사를 강사로 열리는 부흥회는 기간중 매일 오전 5시, 11시, 저녁 8시에 모이게 된다.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성탄절 축하메시지은백성에게 미칠
큰기쁨의 좋은소식

해마다 이때가 되면 각 신문사나 방송사에서는 금년의 최대 뉴스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십대뉴스를 보도하곤 합니다. 금년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더욱 많은 뉴스들이 있었습니까만 저는 금년에도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최대 뉴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구주 성탄의 소식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은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생이 가지고 있는 삼대문제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의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죄진 인생은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 는 것이 두려움이 됩니다. 그러나 성탄을 통해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인간의 본연의 고귀함을 알게 하고,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기쁨이 됩니까?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보증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 나라의 의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양식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극복케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994년도 성탄절을 맞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성탄절을 보내야 할까요? 첫째로 찬양의 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깨어 있는 밤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눅 13:11)"고 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 날을 해방의 날, 화해의 날, 회개의 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주님없이 참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오늘, 1994년의 성탄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동안 이 민족이 저지른 죄악의 쓰레기를 치우느라 청소부 노릇하며 수고하신 대통령 내외분을 위시하여 최전방에서 국토방위에 수고하는 국군장병들, 치안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는 모든 경찰들과 우리 7천만 민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의 축복이 넘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 다섯째 인을 때심

“다섯째 인을 때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9절) 다섯째 인을 때 때의 장면은 장소가 천국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보라” 하는 네 생물의 소리는 없고 대신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라고 순교한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9절에 순교를 당한 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했는데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금향단과 번제제단이 나오는데 여기는 번제제단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순교자들이 번제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심령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희생제물을 바칠 때에 피를 제단 아래에 붓는 것이 당시의 제사법규였습니다. 그런데 피뿌린 제물들처럼 피흘린 순교자들의 영혼도 자연히 제단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순교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 이들이 순교한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번째는 저희의 가진 증거 즉 선교(전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바쳤습니다. 심지어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는 번역만 해도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상에서 당한 모든 고난과 고통을 하늘에서 다 기억하고 심지어 성경에까지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10절)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며 참되신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한다는 말은 이것을 기록한 당시에도 지구상에 불의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인류 전체가 아니라 뱀의 씨들입니다. 이런 기도를 한 이유는 당시에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소리 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교자들의 이러한 기도는 개인적인 보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기도였고, 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불공평한 것들이 해결되도록 해달라는 기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증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11절) 순교자들이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신원해주시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를 나누어주셨습니다. 의의 세마포 옷을 이들에게 나눠줬다는 것인데 흰색은 순결을, 영광, 승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또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저들에게 의의 세마포 옷을 나눠주신 다음에 수가 차 때까지 잠시동안 쉬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순교자의 수가 차 때까지 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쉬는 것은 안식의 축복입니다. 또 “이들의 수가 차 때까지 잠깐 쉬라”고 했는데 잠깐이라는 말은 긴 시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수가 차 때까지 쉬라고 했는데 순교자들의 수가 언제 차까요? 7년 대환난 때에 그 숫자가 다 차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7년 대환난 중에서도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뉘는데 전 3년 반보다는 후 3년 반때에 고통과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교자의 수가 아직 차지 아니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수를 예정하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교의 각오를 하고 하루하루를 지나가야 합니다.

2. 여섯째 인을 때심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때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12절) 여섯째 인을 때 때 큰 지진이 났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천체와 지상의 대변동을 의미하는 우주적인 굉장한 사건입니다.

첫째로 큰 지진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큰 지진이 일어나

충현강단



일곱 인 재앙(3) (계 6:9-17)



신 성 종

<목사·당회장>

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는 큰 폭동을 뜻하는 말입니다.

둘째로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총담이란 염소의 검은 털로 짠 천을 말합니다. 흔히 이것을 상복으로 많이 입는데 그래서 슬픔을 표시할 때 총담으로 만든 상복을 흔히 입습니다. 실제로 해가 이렇게 검어질 수도 알뜰한지 있습니다. 지금도 때로는 불의 연기로 인해서 해가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고 화산 폭발이나 태풍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은 전에 없었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달이 피같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것을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와 같은 변화가 세계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의 만국기를 보면 해와 달과 별로 그 국기를 만든 나라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태양이라고 자기 자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듯 그런 사람들이 빛을 잃고 검어지고 없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달은 태양에게서 빛을 받아서 밤에 세상으로 전달하는데 그것이 피같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달은 해를 의지하는 겁니

다. 해를 의지했던 권력자들을 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위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을 의지했던 자들이 해가 피빛으로 변하듯이 이들이 결국 제거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열리는 것같이 떠나가고”(14절) 마치 두루마리를 두르듯 하늘이 말려서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혁명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며”라고 했는데 이것은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심판을 받을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1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무자들, 강한 자들, 각 종, 자주자 등 일곱 계층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일곱 계층의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고 수백 수천의 계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곱은 완전수로 세상에 있는 모든 계층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사람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자의 심리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숨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나서 무화과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또 북한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런 현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람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주님 제림 직전에 있게 될 7년 대환난 때에 우리가 어디에 숨겠습니까? 계룡산이요? 삼각산이요? 소용없습니다. 본문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16절)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더욱이 이때의 진노는 단순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 양의 진노라”고 했습니다.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의 진노는 흔히 볼 수 있지만 어린양이 진노했다는 것은 단 한번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7년 대환난 때에 진노하시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역사상 한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흔히 희생이나 온유나 친절이나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지 진노로 표현된 곳은 없습니다. 본문이 유일한 경우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어린양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여기에 서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3. 결론

우리는 본문에서 몇가지 기억하고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자기들이 그렇게 욕했던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하면서 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이 어린양의 진노에서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가지,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롬 8:37)고 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딸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요일 5:4 5)라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직 어린양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린양 예수님만이 죄와 여러분의 불은 죄들을 흰 눈같이 희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와 여러분들을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변해주실 것입니다. 그날, 그 나라에 가지까지 어찌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우리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5년도 차량관리 요령

모두가 잘 알아 협조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며 관리요령대로 하기를
교회 차량관리부에서 위반 차량에 스티카 발부기로

교회는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내년도 부터 주차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모든 교인들이 이를 잘 알아 스스로 지켜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교인들이 주차문제의 심각함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양보함으로써 만이 해결될 수 있는 일이지만 교회에서는 이를 위해 주차 관리제도를 폭넓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모두가 이 차량관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며 관리를 하는 사람이나 차량운행을 하는 사람이 한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 주일 차량관리의 기본원칙

1. 차량의 진입과 퇴로(도표)

1) 진입은 테헤란로와 교회 전면의 논현로에서만 가능하다.

2) 퇴로는 언주로, 교회 후면의 논현로, 봉은사로만 가능하다.

3) 택시를 이용하는 교우께서는 테헤란로, 언주로, 논현로 등에서 하차한다. (단 노역자에 대해서는 부원의 판단으로 진입을 허용할 수 있다.)

2. 주차질서

1) 장로와 안수집사는 원칙적으로 장안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2) 예배를 드린 다음에도 계속하여 주차할 경우에는 미리 지하 2층에 주차해야 한다.

3) 주차는 자동차 전면이 벽을 향하게 하여 행선으로 교회 건물이 오손되지 않도록 한다.

4) 주차시 주차선에 평행되게 주차하며 경사진 곳을 제외하고는 기아는 중립에, 브레이크는 풀어 놓는다.

5) 주차장내에서 주차증,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히터를 가동하여 주차장의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한다.

6) 모든 경우에 차량관리 요원의 안내와 지시를 따라야 한다.

3. 위반자에 대한 조치

1) 상기 1항(차량의 진입과 퇴로), 2항(주차질서)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의문을 자동차 앞장에 부착하고 위반사항을 주간총현에 게재하여 통보하고 주의를 환기시킨다.

2) 1)의 조치를 1년간 3회 반복하였을 경우에는 당회의 소양교육을 받게 한다.

4. 기타

1) 교역자 및 장로는 조를 편성하여 매 2개월 마다 관장지역을 순환 봉사한다. 교역자 및 장로조의 봉사는 차량부 요원의 봉사활동을 지원, 격려, 조정, 해결, 위로하며 실정을 파악하여 차량관리에 대한 전 교인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교회적으로 대처해야 할 정책수립을 주업무로 한다.

2) 카풀제를 적극 권장한다.

교회내에 자동차 주차대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동을 범교회적으로 전개한다.

- (1) 빈차 같이 타고 오기(차량 유리창에 행선지 표지 부착)
- (2) 같은 교구 혹은 구역식구끼리 교대로 자동차를 활용한다.
- (3)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 (4) 교회 근처 및 도보거리 30분 이내에서는 차 안타기 운동 전개

'95 총현교회 차량관리부 조직표

- 부 장 / 우기전
- 차 장 / 이정우 이갑재

- 1조장(정문·봉사관 주변) / 황현철
허판영 김종규 김동만 김종성 김영연
- 2조장(동문) / 이정우

윤병조 백호남 이병진 김영국 김종민 김수진

· 3조장(본당앞·교육관 주변) / 정태두
한종구 변해수 공석생 장영창 손기현
성 증 서연석

· 4조장(본당뒤·선교관 주변) / 최정남
김봉중 정영길 이만석 윤석규 주명수
이구연 이용열 박원화 김용동 정무열
김원호 김영호 우기섭 조규만 엄창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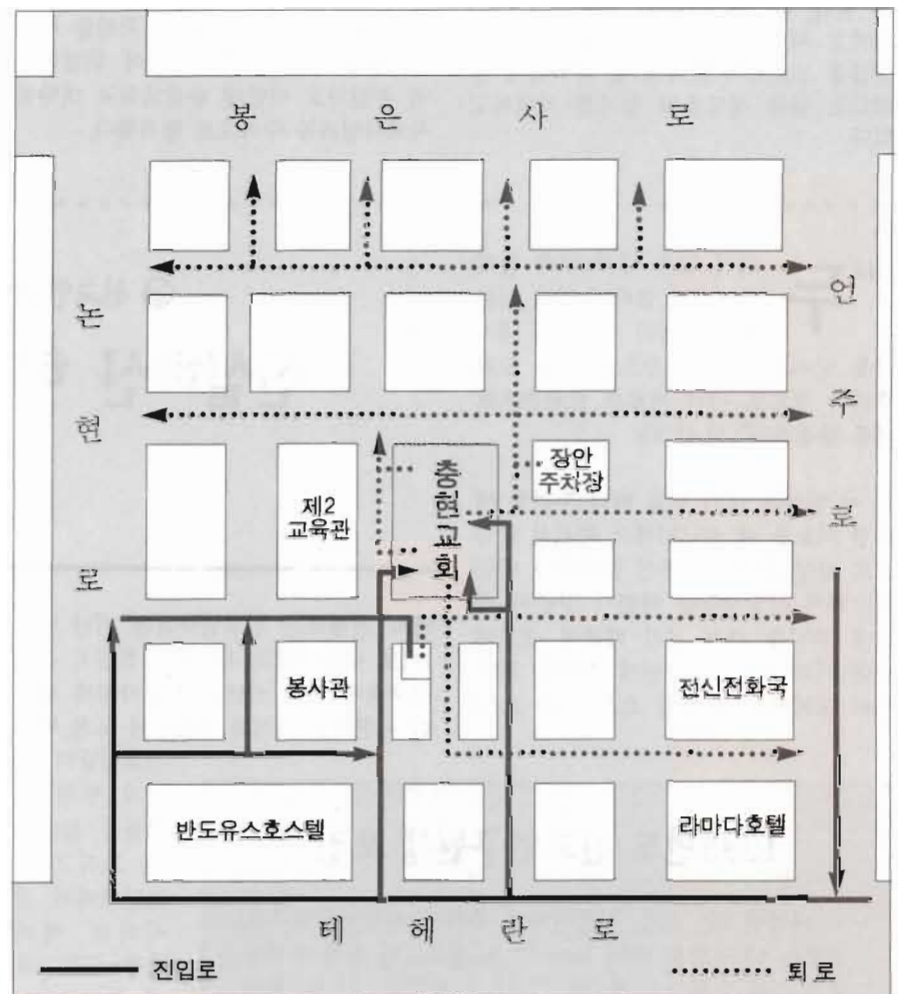
· 5조장(지하1층 주차장) / 이갑재
이성실 강선호 최진성 강희창 홍금호
김동삼 이인수 윤선한 오병두 이유성

· 6조장(장안·지하2층) / 오인근

박창식 김선구 김일교 김낙홍 한중현
김은석 임세규 이창권 이승구 박영섭
정동우 박한규 고정중 윤병범 최윤식
신중식

· 7조장(지원·외각진입) / 허명호

차기풍 이진우 김면영 김정태 전운일
이재항 이양호 임동재 이 홍 임영훈
송인섭



첫번 크리스마스

주님 그날은

참으로 모든 날들 중에 가장 커다란 날이었습니다
별을 보고 달려 오던 박사들의 발자욱 소리와
양을 채던 목자들의 뜨거운 감격의 눈물은
천군 천사들의 화답과
어울려 그대로 커다란 합창이었습니다

밤새 쉬지 않고 퍼부어대던
분열과 다툼의 극한 폭설은 고치고
터진 먹장 구름새로
주님의 따스한 빛과 사랑이
펼쳐도록 쏟아진 환희의 새벽이었습니다

오라 우리가 뻔뻔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리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은 가장 낮은 데로 임하시어
가장 크신 일을 이루셨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은 영원전전부터
결코 그 생명을 바랄 수조차 없는 주검들에게
만나고 싶어하시었고
당신의 생명을 소개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아니 사실은
당신의 생명을 친히 나눠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었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니
선지자와 율법을 거부하고 죽었던 우리들에게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가장 패역한 타자를 향한
가장 숭고한 아버지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하여, 광염처럼 쏟아지는 주님의 사랑은
얼어지친 영혼들로 뉘를 얻고
겉껍질 막힌 죽음의 갇을 빠져나와
생명으로 향한
환한 소망의 창을 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
주님의 영광이 온누리에 가득하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옵니다

호산나,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님
온 땅이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이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옵니다
하늘조차 그 감격 견디지 못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문을 열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중에 평화보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따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군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변 준 욱(전도사, 탁아부 지도, 출판부 부지도)

교사총회 마쳐 지난 주일 저녁예배 후

교회학교의 교사총회가 지난 주일 저녁 찬양예배 후 본당과 교회의 각 부속건물에서 실시됐다. 총회 예배에서 당회장 신성종 목사는 '진정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는 교사로 자라날 것을 당부했다. 이어 1994년도의 각 부별로 모여 1년 동안의 사업보고 및 결산을 하고 타부서로 이동하는 교사들을 환송하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이어서 1995년도 임명받은 부서에서 새로운 부장, 교역자, 교사들과 첫 대면을 하고 신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핸드벨 연주대 제2회 송년가족음악회

핸드벨연주대가 지난 해에 이어 두번째로 송년 가족음악회를 오는 12월 31일(토) 오후 4~6시까지 갈릴리홀에서 가지게 된다. 핸드벨연주대의 대원들과 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친교와 단합을 도모하며 모이게 될 음악회에 관심있는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전도 모범교사 선정

제1교육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전도에 모범적으로 참여하여 학급을 부흥시킨 교사를 전도모범 교사로 선정하였다. 전도모범교사는 10명 이상을 전도하여 학급과 부서를 부흥시키는데 앞장섰다.

- 장명자 김영실 박순숙(이상 영아부)
- 신재금(초등3부)
- 강영희 김영환(이상 초등6부)
- 옥 설(초등3부)
- 김광호 유길자(이상 고등부)

이준우 강도사 서울시장 표창

에바다부 지도 교역자 이준우 강도사가 농아인 복지 향상과 수화통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12월 16일(금), 오후 2시 종로구청 회의실에서 서울시장 표창을 받았다.

이준우 강도사는 충신대학원을 마치고, 숭실대학교 사회사업과에 편입학하여 졸업하고 이번에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과를 수석으로 합격했다.

다함께 기도합시다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옵소서.
· 김창인 목사 : 능력으로 날마다 붙들여 주시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 신성종 목사 : 26일(월)~29일(목) 송구영신 부흥집회(기도원)
2.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시작 10분 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드림으로써 은혜 충만케 하소서.
3.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결산과 계획으로 경건하게 지내고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케 하소서.
4. 하나님의 축복으로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원사님에게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사 국정을 잘 감당케 하소서.
5. 입시와 취업을 앞둔 청소년들이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여 가장 선한 하나님의 인도로 확신하며 정진하여 승리하게 하소서.
6. 선교사들의 사역과 전장을 지켜 주시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 아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10)

이 말씀은 내가 힘들 때나 두려울 때 또한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항상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선교에 관심을 가져 왔기 때문에 선교에 관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해 왔다. 우리 교회에서 매 주일 오후 3:00-4:50

☉ 선교연구원을 마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강 기 업

(선교연구원생)

까지 진행하는 선교연구원을 지난 92년 1기로 수료하였고 지금까지 틈틈히 선교연구원에 참여 하면서 선교사에게 필요한 이론적인 지식과 정보들과 또한 여러

선교사들의 선교지 현장 애기들을 들어왔다. 그리고 선교단체에서 실시하는 여러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선교 관심자에서 선교 헌신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던 중 예비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인 MTI(총회선교훈련원)에 들어가 지난 9월 6일부터 12월 2일까지 과정을 수료하고 계속해서 언어연수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MTI가 대치동에 있는 총회회관으로 이주하면서 드리는 첫 훈련인 만큼 뜻깊은 것이었다. 그동안 변변한 훈련

원 건물이 없이 이곳 저곳으로 전전하면서 선배 선교사님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하니 나로서는 무척 감사한 일이었다.

처음 훈련이 시작되었을 때는 들뜬 감정에 신나고 즐거웠지만 매일 아침 9시 정시에 출석체크를 하는 탓으로 지각하지 않기 위해 총회회관으로 향하는 대치동 언덕길을 험악 대며 뛰지 않을 수 없었다. 지각하지 않을 일념으로 분초를 다투어서 뛰었던 보람으로 무사히 수료를 할 수 있었다. 훈련을 받으면서 내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여러 선교후보생들과의 교제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위로를 나눌 수 있었던 점이다.

또 기라성같은 선배 선교사님들의 현장 경험을 통해서 현장감있는 여러 선교지의 상황과 현지인들의 삶,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겪어야 하는 다양한 문화충격들을 미리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것은 '나는 선교지에 가게 되면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없지않아 있었다. 이번 훈련을 받으면서 그동안 내가 미처 생각지 않았던 부분도 강의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초기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다. 나는 서양 선교사들의 이름에는 익숙해 있었지만 정작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신 그분들을 잊고 있었다. 이번 훈련을 통해 그분들에 대해서 배운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또 3개월의 MTI훈련을 잘 마칠 수 있

었고 지금도 계속되는 훈련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와 선교위원회를 통한 훈련비 지원 때문이었다. 교회에서 여러 사업들로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작은 소망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기도와 물질로 지원해 주신 당회장 목사님과 선교위원회의 위원장님, 지도 목사님 그외 관계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선한 사업에 힘쓰시는 교회와 신실한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 자라나는 밝고 깨끗한 새싹들을 발굴하고 양육시켜서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키우는 일에 온 교회가 더욱 협력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미숙하나마 감사의 글을 마치고자 한다. 그 동안 늘 동행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1994년 12월 11일
총현선교연구원생 강 기 업

1995년도 선교연구원생 모집

세계선교는 모든 신앙인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입니다. 교회는 이 명령을 더욱 효과적으로 받들고자 하여 세계선교에 대해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시는 총현의 성도들, 특히 앞으로 직업을 가지고 해외에서 수년 이상 체류하거나 혹은 해외로 이주해 살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총현의 선교역군들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1995년도 선교연구원생을 모집합니다.

- 훈련기간 : 제5기 과정(1995년 1월 첫주~1995년 12월 마지막 주)
- 자격 : 해외에서 직업을 가지고 선교하는 전문인 선교사(tentmakers)로 사역하기 원하거나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대학부 이상의 총현교회 세례교인.
- 교육시간 및 장소 : 매 주일 14:30-16:40, 연중무휴, 장소는 베다니홀.
- 강사진 : 국내 저명 선교학교수, 현장 선교사역자
- 특 전 : 1년 이상 수료한 성도는 본인의 청원시 심의 후 본 교회 전문인 선교사로 파송받고 각종 선교자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모집기간 : 1995.1.29(주일)까지
- 등록비 : 1년(52주) 20,000원
- 접수처 : 교육국(교 503-505), 소정양식 의지
- 면 절 : 추후 통지
- 개 강 : 1995. 1. 1(주일) 오후 2:30 베다니홀

전화로 신성종 목사의 설교를, 교회안내도 함께

700-4403

'이 시대의 좋은 소리'에서는 전화로 메시지 및 교회안내 등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 교회의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설교도 '이 시대의 좋은 소리'의 전화이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 이 전화 서비스는 메시지 뿐만 아니라 말씀 묵상과 성서낭송, 신앙 간증과 신앙예화, 교회소식 등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을 때 또 전도대상자에게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을 때, 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싶을 때 활용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전화로 들을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700-4403 총현의 소리
- 700-4633 간증
- 700-4733 청소년을 위한 사랑의 전화
- 700-4833 행복한 여성의 전화